

남구 ‘스트리트푸드존’ 상인들 “재계약 안할 겁니다”

8월 계약 만료 앞두고 연장 거부 움직임…3년도 안돼 좌초 위기
“비·더위 피할 곳 없고 음식 먹을 공간 없는데 손님 찾아 오겠나”
지하철공사·구도심 인구 유출·상권 침체 등 겹치며 활기 잃어가

광주시 남구가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스트리트푸드존’의 더딘 활성화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젊은 이들이 찾는 남구의 랜드마크성 오픈 마켓을 표방했지만 지하철공사·구도심 인구 유출·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벌써 입점 점포 26곳 중 10여곳은 계약 기간(8월 31일)을 앞두고 재계약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상인들 절반 가량이 빠져나가면서 자칫 스트리트푸드존이 ‘썰렁한 골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남구 등에 따르면 백운광장스트리트푸드존 상인회는 이날 현재까지 10여개 점포가 재계약 연장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리트푸드존은 지난 2022년 9월 운영을 시작해 문화예술부스 10곳과 음식 부스 26곳이 채워질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문화예술 5곳(3개업체)의 문화예술부스와 21개의 음식점포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 앉아서 음식 등을 맛볼 공간이 없어 비가오거나 더운 여름철 손님들의 불만이 커 상인들의 개선 요청이 잇따랐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업·철수를 고민하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상인회측 설명이다. 상인들은 “현재 계약 조건으로는 여름철·비오는 날 등 장사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끝날 줄 모르는 지하철공사도 상권 활성화를 막고 있다. 구도심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백운 광장을 찾는 인구도 줄었다.

상인회 관계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먹을 공간도 없는데, 무조건 문 열라는 말이 되느냐”며 “기존 골목상인회와 메뉴가 겹치면 안된다는 이유로 심사 받아 입점한 메뉴 외에는

팔지 못하게 막으면서 과연 최저시급이라도 나올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지하철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푸드존을 찾는 손님이 줄어들어 매출이 매달 걷는 회비만큼도 안 나온다는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지난 2023년12월부터 이곳에서 초밥 전문점을 운영해온 문정일(43)씨는 “기본 회비를 한달에 1만원씩 걷고, 야시장이 열리는 기간에는 주에 2만원씩을 걷어 달에 평균 10만원씩은 나가는데 매출이 그에 상응하는만큼 나오지 않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또 “부스로 와서 음식을 구매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명도 없다. 대부분의 수익은 사실상 배달로만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부터 타코 전문점을 운영해온 김태성(35)씨도 “오프라인 손님은 거의 없다. 산책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나마 뽕튀기 판매 부스는 운영이 되는데 누가 낮에 여기서 곱창을 먹겠냐”고 했다.

스트리트푸드존 올해 매출은 1월부터 5월까지 총 3억1300만원이다.

오픈 첫 달인 2022년 9월에는 한 달에만 매출 2억 7000만원을 달성했지만, 이후 인기가 사그라들며 2022년(9~12월) 6억4700만원, 2023년 4억 600만원, 2024년 6억8100만원에 그쳤다.

남구는 산하 기관인 도시재생협력센터를 통해 상인회와 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는 “푸드존 활성화 및 주변 상인들과의 원만한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17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광장스트리트푸드존에서 타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성씨가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왼쪽). 이날 오후 백운광장스트리트푸드존 일대가 오가는 이 없이 썰렁하다.



이사장 내정설에… ‘들러리’ 싫다?

광주 남구 시설관리공단 1차 공모 1명 지원…재공모 들어가
‘들러리’ 우려에 지원자 없는 듯…남구 “공정하게 선발할 것”

‘이사장 내정설’에 휘말렸던 광주 남구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공모에 들어갔지만 공모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를 넘지 않아 재공모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내정설을 감안한 ‘들러리’가 될 것을 우려, 공모에 나신 지원자가 적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9월부터 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비상임이사 재공모를 진

행중이다.

앞서 구는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당시 1명씩만 지원,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이 접수해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공고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남구는 외부 위탁·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중으로, 지난 2018년부터 타당성

해왔다. 남구의회는 그러나 내정자 검증과정 부재 등 투명성 문제와 설립 시의성 등을 들어 ‘광주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한 차례 보류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는 있어선 안되며, 행정 경험과 공공 마인드를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구 관계자는 “모집 마감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임원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적임자를 선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울고법도 “뉴진스 독자활동 안돼”

이의신청 항고 기각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다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 반면,

채무자들은 향후 연예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갈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신뢰관계 파탄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날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서초교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하라”

화정1동 주민들 “보도 미확보 등 아이들 안전 위협”

광주시 서구 화정동 주민들이 광주서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회는 17일 ‘광주 서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 서한을 광주시 서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화정1동 주민 용기선씨를 대표로 한 화정1동 주민들 500여명의 서명도 동봉됐다.

앞서 지역위는 광주서초를 중심으로 통학 시간대의 차량 통행 문제, 보도 미확보, 주정차 위반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들고 광주서초 통학로 개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한에는 등·하교 시간 정문 및 후문 주변 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결할 것,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를 설치할 것, 학교 주변 보도와 차도 구분을 통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할 것,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인근 현대·골드클래스 아파트 앞 통행로를 확보할 것 등 요구사항이 담겼다.

기존회 진보당 광주서구갑 지역위원장은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고 있다”며 “이번 서명은 단지 민원을 넘어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간절한 요구”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갑질 간부 면죄부 규탄

남구 공무원노조, 市 처분 비판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노조가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광주시의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7일 “갑질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광주시 인사위원회를 규탄한다”며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결정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노조는 아울러 “구청장의 갑질 근절 의지가 부족하고 인사위원들의 인권의식 부재가 낳은 참사”라며 “가해자의 편에 선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여직원들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는 남구청 A 동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진아 기자 jinggi@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